



봄이 오는 길목 ‘입춘대길’ 1일 광주 북구 노인복지센터 서예반 회원들과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4일)을 사흘 앞두고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북구청 현관에 입춘방을 붙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 아이 학교 어디로...” 학부모들 긴장

광주교육청 오늘 중학교·내일 고교 추첨 배정 결과 발표

통학 거리·선호 학교따라 희비...새 용역안 3월 중순 결정

올 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배정 발표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배정의 경우 학부모들 사이에 자녀 진로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일부 자치구는 고교 정원보다 신입생 숫자가 많아 자칫 선호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근거리 학교 진학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 당국도 불만이 없도록 신경쓰는 분위기

역력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일 오전 10시 2017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합격자에 대한 추첨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47개 일반계 고교 신입생 1만4230명(남학생 7096명, 여학생 7134명)이 대상이다.

광주 90개 중학교 3학년생들이 절반 가량 적은 47개 고교로 진학하는데다, 광산·서구는 신입생 숫자가 정원보다 많다. 광산지역만 보면 25개 중학교 3학년생은 4389명이지만 동일 지역 10개 고교 1학년

정원은 3450명이다. 939명은 타 자치구로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다. 서구도 비슷해 15개 중학교 3학년생(2833명)이 같은 지역 8개 고교 1학년 숫자(2358명)보다 475명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희망·선호 학교를 배정받을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청이 신입생 증가로 인한 학급 부족을 해소하는 취지로 송덕고(2학급), 정광고(1학급) 학급을 늘렸지만 학부모들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중학교도 고교 만큼은 아니지만 학부모

들은 걱정이 앞선다. 광주교육청은 2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동·서부 교육청 내 90개(동부 4749명·서부 1만491명)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추첨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통학 거리 30분 이내 배정 원칙임에도 학교별 학생 생활 지도·교육 방식 등을 감안한 학부모들 선호도가 엇갈리면서 교육 당국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통학 거리가 30분 이내인 학교에 배정하는 방향으로 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취학 아동 40명 어디에 있나

광주교육청 소재 파악 나서

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입학 앞둔 취학 예정 학생 4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긴장하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들에 대한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43명(동부 3명·서부 40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들어갔다.

이들 학생들은 해외 출국, 여행, 홈스쿨

링, 대안학교 입학 예정 등 사유로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 관할 거주지 동사무소가 경찰과 연계해 소재를 파악중이다. 해당 학생들은 취학아동 명부에 적힌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이후 ‘미취학·무단결석’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입학 전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석 전남대 총장 취임

정병석 전남대 총장이 1일 취임했다. 전남대는 이날 오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정병석 제 20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방문 전 총장을 비롯한 전임 총장들과 노동일 총동창회장, 광주·전남 지역 주요 기관장, 국회의원, 교직원, 학생 등 1000 명이 참석했다.

정 신임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제 몫을 받는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총장은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86년부터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 로스쿨에서 두 차례 방문 학자를 지냈고

전남대 법과대학장, 융합인재교육원장, 기획연구실 부실장, 로스쿨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해질녘 18:02

달출몰 10:39

달몰림 23:27

차차 풀려요

아침 기온 평년보다 낮아 좀 쌀지만 낮부터 기온 회복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5/6	보성	맑음	-6/6
목포	맑음	-4/5	순천	맑음	-3/7
여수	맑음	-3/7	영광	맑음	-7/4
나주	맑음	-7/5	진도	맑음	-2/4
완도	맑음	-3/6	전주	맑음	-7/5
구례	맑음	-7/5	군산	맑음	-7/5
강진	맑음	-5/6	남원	맑음	-9/6
해남	맑음	-5/6	축산도	맑음	0/6
장성	맑음	-7/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3.0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1.5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47	05:38
	23:15	18:01
여수	06:13	00:19
	18:48	12:38

◇주간 날씨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2/8	-1/7	2/6	-2/6	-3/8	-2/6	-1/5

◇생활지수

매우높음

뇌졸중

매우높음

감기

관심

학원은 인건비·학부모는 원비 인상 걱정

‘통학차량 보호자 의무 탑승’ 시행...경찰 계도 단속

“장기 불황으로 원생 수는 줄어드는데,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의무적으로 태우라니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 <서구 A학원 원장>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죠. 또 그동안 2년이나 유예기간을 왔는데 아직도 불멘소리를 하면 어떡하나요.” <북구 B학원 학부모>

어린아이를 통학차량에 보호자 의무 동승을 구현한 ‘개성 도로교통법’(일명 세립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영세학원들의 불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문 닫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지역 학원 현황을 보면 감소세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지역 학원 수는 3820개에서 11월 3785개로 4개월 사이에 35개가 줄어들었다. 고교소도 같은 기간 1262개에서 1242개로 20곳이 감소했다. 그만큼 학원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세학원들은 통학차량에 탑승자 1명을 더 태우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학원비 인상, 학부모 부담 증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남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무작정 동승자를 태우라니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적인 부분도 문제”라며 “결국 승합차 운행을

폐지하고 아이들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구의 또 다른 학원 D원장은 “동승자를 태우면 동승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결국 학원비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학원비를 올리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차량운행 중단과 초등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원은 “벌금 20만원을 내고 말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원장들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지 말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동승자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통학차량 운행 시간에만 필요한 까닭에 근무시간이 맞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원 직원을 동승시켜 운행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동승자인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남구의 한 태권도학원의 E원장은 “아이들이 언제 불췌 될지 몰라 동승자 탑승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당분간 방학 중에는 계도 단속하고, 3월과 9월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에 집중단속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제조업체: 대한보청기, 모델명: B0707070)

창사 40주년, 특별大행사

대한보청기

1+1 무료!!

구입 시 전 제품해당

특별이벤트

무료!!

배터리 5년간 무료!!
A/S 특별 3년간 무료!!
(보청기 구입 1+1 무료, 모두 적용)

50% 특별大할인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도 대한보청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충주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